

**걸프** 위기가 고조되고 소련 내부의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나토의 외무, 국방장관 연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나토 자체에 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애초에는 진행중인 전략 검토와 나토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 일상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나토의 장래 목표와 구조에 관해 열띤 토론과 함께 상당한 견해차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나토내에서 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유럽우방국들의 소망은 분명하게 표명되었지만, 유럽 국가들이 이를 시행할수 있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채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

더구나 자국 영토에 강력한 미군부대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의견일치를 보였지만, 이에 따르는 역설적인 문제에는 대처하지 못하였다.

북대서양협의회는 거의 전적으로 유럽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외무장관들은 「유럽과 북미간 지도력과 책임의 완전하고 평등한 분배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유럽우방국의 역할증대를 예견하였다. 이 말은 장차 유럽 국민들이 더 큰 몫의 방위부담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열흘정도 앞서 개최된 국방계획위원회 회의에서 국방장관들은 각국이 국방지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현재 추진중인 전략 검토를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에 접해야만 했다.

이와 함께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모두 유럽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적 결속과 유럽내에 북미국가의 전력 주둔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국방장관들이 군사시설계획을 검토한후 분명하게 제시되었으며, 국방장관들은 미국의 제401전술비행단을 이탈리아의 Crotonc으로 이동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승인하였다.

국제적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이 이전(移轉)에 대한 상당한 반대가 있기는 하였지만, 미국의 자금제공을 위한(의회 의 지지를 얻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이 승인은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적인 추가자금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몇몇 국가는 위협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독일의 외무장관인 Hans-Dietrich Genscher 박사는 유럽의 동질성 강화가 대서양의 확대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따라서 유럽의 안보상 동질성을 위한 노력이 동맹의 분열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으로 강조하였다.

그는 최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협상시의 정치적인 면을 지적하였고, 협상에 따르는 위협을 극복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일시 중단을 환영하였다.

수년간 유럽 국민들이 더 큰 몫의 방위부담을 안도록 요구해온 미국은 더욱 강력한 유럽을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그 취약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은 동맹내 유럽의 방위동질성을 전적으로 지지하였고, 이는 서유럽연합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일관성 있게 생각하였다.

동유럽내의 분쟁이 서유럽에 미치는 위협을 지적하면서 그는 분명하게 경고하였다.

『만일 이러한 종류의 위협에 대처할수 있도록 나토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 좌절된다면, 우리는 과거의 치명적인 실수를 단순히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와같이 유럽이라는 기둥이 『체체묵고 비생산적인 「영역외부의 역할」에 관한 논란』에서 나토가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기를 희망하였다.

또 제임스 베이커 美 국무장관은 나토의 전략검토 추진과 더욱 광범위한 정치적 통합을 향한 유럽공동체의 추진과정에서 서유럽 각국간에 긴밀한 협의를 기대하였다.

그는 유럽과 북미간의 연관성을 강조하였고, 새로운 세계질서에서는 「단절된」 북미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고립된」 유럽도 있을수 없음을 말하였다.

소련에서의 위기심화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베이커 장관은 단기적으로 소련이 직면한 문제는 개혁이 성공할 것인지 보다는, 무정부 상태와 혼란을 방지할수 있는 것인가하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군부와 KGB 같은 소련사회내 강경집단의 세력이 증대되고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였다. 최근 소련의 징집기피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무장관들은 소련내 정치, 경제적인 개혁과정을 돕기 위해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주요한 불협화음은 나토의 정치적 역할 증대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 바르샤바조약기구 국가와의 기존 정치적 접촉을 확대하자는 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반대하였다.

프랑스 대표는 이러한 형태의 접촉은 나토가 아닌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一笑一少一怒一老

10살쯤 더 늙었으면...

졸지에 수십억 재산을 갖게 된 노인이 스물을 갓넘은 처녀에게 청혼을 하였다.

「아가씨. 비록 내나이 70세지만, 내 심신은 젊은이와 똑같다오. 나와 결혼해 주겠소?」

그러자 처녀가 조그만한 소리로 말하였다.

『이왕이면 10살쯤 더 많다면 더 좋을 텐데...』

결국 각국 장관들은 「더 넓고 적극적인 교환을 통해 안보문제 및 공동관심사에 대해」 나토와 소련 및 중, 동부 유럽국가들과의 대화를 확대한다는 방식에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장래 정치적인 활동의 증대에 따라 몇몇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반대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걸프에서의 이라크의 침략에 반대하는 공동 결의를 채택하는 성명에서는 이 보다 화합을 이루었다.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강력히 지지하였으며, 장관들은 이라크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또 장관들은 회원국중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주목하였으며, 북대서양조약 5조에 의한 동맹국가와의 단결을 천명하였다.

실질적 조치가 이에 이어졌다. 1월 2일 상임대표자급에서 가진 나토의 국방계획위원회에서는 나토 유럽기동부대(AMF)의 공군력을 터키 동남부에 배치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12월초 접수된 터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나토가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할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비록 응답이 조금 늦어지기는 하였지만—회원국들이 민주국가로서 이처럼 중요한 문제는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특히 휴가 기간 중에는)—이 조치는 사담 후세인에게 터키에 대한 어떤 행동도 조심하도록 할뿐 아니라 그와 전세계에 나토의 입장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되었다.

견해차이는 여러 국가 조직에서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토론은 건전한 민주적 과정의 표시이다. 그러나 세계의 상황은 2차대전 이후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강령하고 단결된 나토가 유일한 안정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국가적인 이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煥).

〈Miltech 91/2〉

**나토**는 현재 설립 이래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임무중의 하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토는 냉전 종식후 존립 근거를 찾기 위해 힘쓰고 있다.

6월 6~7일간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북대서양협의회에서 서방 지도자들은 나토의 새로운 역할을 규정하고 적용 전략 및 이에 따르는 군사조직을 보여줄 한 문서를 검토할 것이다. 그들은 작년 6월 런던 정상회담에서 1년내 이 문서가 작성되도록 산하 상설조직에 지시하였다.

이 문서에 대한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유럽 안보를 보장하는 조직으로서 나토를 강화하는 현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최초 목적을 초월한 조직의 마지막 업적이 될 것인지 하는 점이다.

16개 독립주권국가 집단으로서,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 나토는 이러한 제약 하에서도 설립 이래 42년간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오늘날의 문제는 설립 당시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당시 나토회원국들은 자국보다 훨씬 강력한 한나라의 즉각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합과 미국의 개입을 통해서만 이에 대항할 힘을 가질수 있었다. 위협이 그들의 마음을 결집시켰으며, 이에 따라 쉽게 의견일치를 이룰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위협은 분산되어 있고, 전체의 이익을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비록 나토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고 범대서양 안보보장기구가 유지되어야만 한다는데는 전반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만, 나토의 장래 목적과 임무 특히 내부적인 세력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 문서는 현재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3가지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16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북대서양 협의회에서는 임무와 목적에 대한 정치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프랑스가 불참하고 있는 국방기획위원회(DPC)에서는 전략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역시 15개국만이 참가하고 있는 군사위원회에서는 군사조직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3가지 기구의 구성 차이는 몇몇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1966년 프랑스가 이러한 통합군사조직을 탈퇴할때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조직이 자국의 방위를 위해 부적절하다고 공표하였다.

따라서 자국방위는 전적으로 국내적인 사항이며, 예외는 이에 도움이 되는 동맹활동으로, 여기에는 프랑스도 계속 참여하였다.

이어서 프랑스 정부와 나토사령관간에 상호 지원과 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 상호협정이 체결되었으며, 기구의 재가입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지만 현재 연구되고 있는 모든 문서는 프랑스 대표단에게 제공되고 있다.

1982년 스페인이 합류하였을때, 완벽하고 제약받지 않는 회원자격이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후속 정부는 일반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쳤으며 군사조직을 떠난다는 조건하에 국민투표로서 회원가입에 대한 국내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국방기획위원회 검토시 참여하고 있고, 군사위원회에도 의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은 이 두 조직의 연구에 관여하고 있다.

一笑一少一怒一老

“마흔살쯤 돼보여요”

어린이날을 맞아 철수에게 옷을 사준 어머니가 웃음뎀 얼굴로 말하였다.

「그렇게 입으니 참 의젓하구나. 10살이 아니라 15살로 보이는데…」

다음날 어머니가 새옷을 입고 외출을 하려할 때 철수가 감탄스런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다.

『엄마도 새옷을 입으니까 35살이 아니라 40살로 보이는데요』

또다른 주요문제는 타이밍이다.

장래의 군사조직은 전략과 일치되어야 하므로 전략검토가 완결된 후 군사조직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전략검토는 이에 선행하는 정치적인 개념에 의존한다.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은 매우 실제적인 것으로, 이는 협의회에서 설정한 기한뿐만 아니라 이미 회원국들이 자국의 전력을 현재의 국제 환경에 맞추어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 3가지 연구는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는 보기보다는 심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상임 대표들이 정치 및 전략검토에 참가하고 있으며, 각자 군사부문 담당자와의 접촉도 긴밀하기 때문이다.

장래 융통성과 기동성을 갖춘 다국적 편성과 일부 지침들은 이미 합의되었다. 위협 분석에 의해 이에 대응하는 조직 형태의 기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나토가 3가지 종류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나, 이 위협과 나토와의 관련성 및 이에 따른 정치, 군사적인 의사결정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고 있다.

주요 위협은 소련의 위협 잔존이다.

비록 군비통제협정이 체결되고 중·동부 유럽에서 소련 병력 및 장비의 일방적인 철수가 이루어지며 병력감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소련은 4백만 병력과 2만5천여 핵무기를 갖춘 군사 초강대국이다.

분명히 서방을 침공하자는 의도는 없지만, 아직 독일에 37만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 소련군의 철수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점증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예측불허인 이 대국은 불편한 이웃이 되고 있다.

유럽내 어느 국가도 독자적으로는, 심지어 나토 유럽국가의 통합으로도, 이에 대항할 역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동맹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국가의 기여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과 내부적인 관계는 역시 결정되어야 한다.

위험의 두번째 범주로는 중·동부 유럽에서 특별한 불안정이다. 유고슬라비아는 분열 직전에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인종 및 국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체제변화는 점증하는 경제, 정치적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하여 변혁을 유도할 수도 있다.

비록 회원국이 위협받지 않는한 나토의 군사적인 개입은 고려된 적이 없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이들 국가와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고, 어쨌든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막강한 서방측 국가기구가 소요지역에 어느 정도의 안정을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나토가 어느정도까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近·中東에서의 불씨는, 최근 불길에 휩싸였지만, 3번째 범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의견 불일치가 가장 큰 부분이다. 이 지역은 터키의 국경과 접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들이 에너지 공급과 교역의 상당부분을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

어떠한 활동이나 비활동이 결정되든, 그곳에서의 사태가 동맹국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국가들은 북대서양 조약을 개정하여 나토가 이에 개입할수 있기를 원하고 있지만,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을 포함하여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다른 집단은 여기에 절대 반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나토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문서에서는 의견 불일치를 화려한 수사(修辭)로써 감출수 있으며, 나토의 상임 관리들은 이러한 경험이 풍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안보 및 안정을 위한 강력한 지주(支柱)로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점차 중요하지 않게 쇠퇴할 것인지는 세계에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煥). <Miltech 91/3>